



◇방문일행의 대표인 법타스님께서 보현사 주지인 청운스님에게 가사전달식을 마치고 가지고 간 가사를 입혀드리고 있다.

필자는 10월 3일 북한에서 거행된 개천절 한민족 공동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한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10월 3일 개천절 행사는 단군릉에서 천제를 지낸 뒤 축하 공연을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필자는 이 행사보다는 북한의 사찰과 문화의 현주소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북한의 대표적 사찰인 묘향산 보현사와 구월산 월정사를 참배한 소회를 정리했다.



◇구월산 월정사의 전경.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극락보전.

북한불교 답사기

차차석 / 본지 상임 논설위원

묘향산 보현사

보현사는 평안북도 황산군 함양리 묘향산에 자리 잡고 있다. 1024년인 고려 현종 15년에 창건되었으며, 사찰의 모습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대가람이다. 옛날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5대 사찰의 하나였다.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가 제자인 사명스님, 처영스님과 함께 이곳에서 5천명의 승병을 모아 평양성 전투에 참석하여 유명해졌다.

현재 이 사찰의 수종사(酬宗祠)에는 세분 큰스님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대장경관공, 보현사비, 8각13층 석탑, 9층탑 등의 문화재가 남아 있다. 기타 대웅전, 관음전, 영산전, 응진전, 조계문, 천왕문 등의 사찰 부속 건물도 남아 있다.

필자가 보현사를 참배한 것은 10월 1일이었다. 묘향산을 북한에선 함산이라 부르고 있었다. 평양에서 북한이 마련한 관광버스를 타고 2시간여 달려 묘향산 입구에 도착했다. 조선시대 때 서산스님은 묘향산을 가리켜 '장중하면서 아름답다'(尙莊亦秀)고 평했는데 역시 기상이 넘쳐나고, 물결기 시작한 단풍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묘향산 보현사에 가는 일행을 안내한 사람은 조선 불교도연맹(조불련)의 국제부장인 유인태스님이었다. 그는 청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에서 조불련의 핵심역할을 했던 일본 임제대학(지금의 화원대학) 불교학과를 나와 북한 유일의 불학원인 갑산 중흥사 불교학원의 교수를 지낸 홍화두스님의 제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불학원은 3년제라고 한다. 역사는 20여년쯤, 법타스님이 쓴 <북한불교연구>에는 1992년도에 평양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전하지 못한 듯 하다.

필자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불학원에 입학할까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신중하지 않았다.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2-3년에 한번씩 지원자들이 20여명이 되어야 개학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사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양성하면서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북한에는 60여개의 사찰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0여개 사찰에만 스님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승려수는 200여명이며, 종지 종풍은 조계종이다. 그래서 소의경전도 <금강경>, <법화경> 등 조계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말일 뿐이다.

북한의 승려들은 모두 결혼을 하며, 머리를 기르고 구두를 신는다. 부인과 자녀는 사하촌에 거주하며 각자의 일을 한다. 해방 직후 불교계에서 혁신운동을 했던 많은 스님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파들이었다. 이들은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의 운명 앞에서 사회주의를 택해 월북하며, 그들의 영향으로 승복과 가사가 조선말기의 것과 같고, 취처와 함께 머리를 기르는 것이다.

북한에도 불교 신도들이 있다. 보통 1만명이라 하지만 청담스님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불교를 믿느냐고 묻자 사찰 주변에 있는 농촌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라 대답했다. 북한에선 신교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종교를 어떤 것으로 보는 사회주의의 특성상 그것은 입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특히 불교가 민중들의 저항의지를 꺾어 봉건지주 내지 제국주의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는 북한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불교도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다. 유구한 불교 역사 위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이 한 두 번 있었던가? 그럼에도 아직 불법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는 것이 불교 아닌가?

보현사에서 법타스님, 종광스님, 학담스님, 덕신스님, 도현스님, 상덕스님, 총지종 총리원장, 원용종 총무원 부원장, 풍대 정의과 유광진 교수, 동산불교대 김재일 박사, 구운회 박사 등 30여명의 스님과 재가자들이 예불을 하고 준비해간 가사를 보현사 주지인 정운(희현)스님에게 전달한 뒤 법당 앞에서 대중이 지

스에 올라탔다. 거리상으로도 그리 먼 곳이 아니기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아침 7시에 출발한 버스는 남포시를 거쳐 서해 감문을 가로 질러 구월산으로 향했다. 서해 감문을 보여주려는 배려였는데 길이가 8km나 된다고 자랑했다. 10시 반쯤 월정사에 도착했는데 사찰로 올라가는 길이 전혀 오염되지 않아 청량한 모습이었다. 물도 맑고 계곡도 좋았지만 귀국하는 날이라 시간에 쫓겨 많은 시간을 머물 수 없었다. 예불을 마치고 준비해간 선물을 증정한 다음 기념사진을 찍자마자 서둘러 하산하게 되었다.

월정사는 황해남도 안와군 월정리 구월산에 있다. 뒷산이 너무 아름다워 달밤에는 선녀라도 하강할 것 같았다. 이조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데 당우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현재 두 분의 스님이 주석하는데 형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찰을 지키고 있었다. 형은 법성, 동생은 혜덕이란 법명을 가지고 있으며, 조불련 부위원장인 황명진스님의 상좌이다. 인적이 드물어 환경보전이 잘되어 있고, 주변의 풍광과 계곡물이 너무 맑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궁극하여 묻자 당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보현사도 그렇지만 월정사의 법당도 장엄되어 있지 않아 험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불단에 촛불 두 자루를 켜 놓고 삼

서산·사명·처영 세스님 영정 봉안

대웅전 외 대장경 판고·석탑 등 문화재

묘향산 보현사

구월산 월정사

법당 내부 장엄 안돼 허전한 느낌

불단에 공양물 없이 촛불만 켜고 삼귀의례

켜보는 가운데 탑돌이를 했다. 나무야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이렇게라도 부처님의 덕을 찬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월산 월정사

월정사를 방문한 것은 10월 4일이었다. 원래는 단군사당이 있는 삼성사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지만 스님들은 특별히 월정사를 방문하기로 하고 모두 한 번

귀의를례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불단에 공양물을 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구월산은 장중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이었다. 귀로에 지나온 신선에서 재령에 이르는 광활한 평원은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을 보여주었으며, 벼를 베는 모습은 마냥 평온하게만 보였다. 그러나 이곳 안내원들이나 주민들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동행한 유광진 교수는 재령평야를 보여준 것은 드문 일이라 했다. 남포로 들어갈 때는 별다른 감회를 느끼지 못했던 구월산이지만 재령평야에서 바라보니 드넓은 평야에 우뚝 선 촛대들이 좀 촘촘하게 늘어진 것과 같았다. 촛대로 만든 재령평야의 병풍, 아니면 방풍산이라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런 산하에 전쟁 공포라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들어오는 길에 안내자인 조불련의 해안리영회 스님에게 북한의 명칭과 관공상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북한에도 성묘가 있었다. 구정, 한식, 추석, 그리고 사자의 생일에는 성묘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 한다. 그것도 3년이면 끝이며, 기제에는 형제들이 모여 사자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결혼은 중매와 연애가 칠대삼이며, 자식을 몇 명 낳는 것은 당사자들의 선택이라고 했다. 죽으면 매장화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선택은 자유이며, 대략 반반의 비율이라 한다. 이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을 제외하면 우리네와 별다른 차이는 없다. 문화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민족을 장려하고 있었다.

북한불교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취해진 칠일조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쿠바식 여행개발, 박정희 스타일의 개발독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에 한정해 본다면 그들은 아직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가 어떠한 위상을 지녀야 하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였다. 우선 주된 배를 채워야 하며, 기존에 있는 것이나 지켜야 한다. 북한 불교 중흥을 위해 근본적인 것은 불학원 시설을 현대화해 주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대민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남한 불교도들의 지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몇 푼의 풍돈을 동냥하기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전불교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세 화보 buddhanews.com에

아무리 예뻐도... 똑같은 건 싫다!

여성감각 우의브

여자를 알면, 집이 달라집니다

여성감각 - 두산아파트 We've 위브

www.wvsapt.com